

## 그리스도의 부활 (요한복음 20:1-10)

우리는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이라는 기도제목에 가진 교회이다. 우리의 사명이고 인생이다. 그래서 남미 복음화에 주력을 두고 하고 있고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운동 하는 중에 남미에서 몇몇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번에 호세아스 목사가 다음 선교일정에 대해서 보고해왔다. 일단 엘살바도르에 가서 일주일간 있고, 그 다음에 온두라스에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니과라과로 가서 코스타리카로 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 끝나면 과테말라에 와서 또 일주일 정도 머물 계획이다. 총 합하면 한달정도 일정이다. 본래는 쿠바에서 꼭 와달라고 해서 쿠바로 갈 것으로 계획을 했었다. 그런데 쿠바로 가는 비행기표가 전에는 한 500불이었는데 지금은 1,100불로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4월이나 5월중에 가는 것으로 미뤘다. 그런데 이번에 호세아스목사님하고 같이 한 목사님을 데려가도록 했는데, 과테말라의 마리오 목사라는 분이다. 이 분은 당세복이라는 분들에게서 복음을 받은 분이다. 그 복음을 받을 때에 성도가 한 천명정도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서 200-300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나는 이 복음운동 한다고 하는 목사님이다. 이 목사님이 과테말라의 헤슬레르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보고 같이 가자고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자기 교회의 일이 있어서 이번에 못 가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구를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니 호세아스 목사가 마틴목사라는 분을 이야기 했다. 이 분은 멕시코에 살고 있고 지금 호세아스 목사가 사는 지역과 차로 4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이 분이 이제 호세아스 목사를 엘살바도르에 가도록 소개한 분이다. 이 마틴 목사님도 당세복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스 목사를 자기 교회에 초청해서 가서 3일 정도 훈련하고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서 가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구원의 길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연결되는지가 잘 안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호세아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것이냐고 하면서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이야기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마틴목사를 보니까 호세아스 목사님 말에 남미끝까지 함께 가고 싶은 제자라고 한다. 그래서 마틴목사와 같이 가라고 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때 마틴 목사가 굉장히 눈이 열릴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도바울 주위에는 항상 이런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고 계속 보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무엇인가? 전도에 대하여 제자가 무엇인가가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이 사도바울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다 했다. 제자 몇 명씩은 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직화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 듣고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되었는데 생각이 들었다. 팀사역전도라는 단어를 쓴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조직전도라는 단어를 쓴지 오래 되었다. 그래서 내가 시간표가 되었는지 리카르도 목사가 원래는 호세아스 목사와 같이 가도록 되었는데, 지난해에 남미는 호세아스 목사를 통해 이미 제자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므로 나는 미국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전에 이 두분 다 선교사 하기로 했다는 말을 나눈 적이 있다.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리카르도 목사님 오면 애리조나 교회에 연결된 교회 가서 2박 3일 훈련할 것이다. 그리고 토랜스에 또 한 교회가 있다. 또 다른 교회가 있다고 한다. 마쓰다 목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문이 열리면 열리는대로 렘넌트들도 함께 가서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이 안열려서 혼자 속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뜻이 있는 분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캠프도 바꾸었다. 지역별로 한다는 것은 이미 전달이 다 되었을 것이다. 전교인이 참여해야겠지만 특별히 렘넌트와 청년들이 빠지지 말라고 하였다. 교회를 캠프 체제, 전도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막하는 것이 아니고 팀사역 전도이다. 제자를 중심으로 한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 눈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이다. 이런 단어들을 주고 올해는 우리

가 진짜로 지교회 중직자 렘넌트 포커스 하자는 말이다. 이런 것들을 좀더 근본적으로 표현한 것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런 것이다. 우리가 뭐하는 교회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남미, 미국, 렘넌트, 다민족,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이를 두고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연약인 것이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절대 계획이다. 바뀌지 않고 바꿀수 없고 아무도 못 바꾸고 사소한 것들도 다 그렇다는 것이다. 지난주 시편 139:2-4절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길과 높고 일어서는 것 이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놀라운 일이다. 이 증거들을 짝 써놓은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호렘산에 오기 전에 이미 거기 계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이 보다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것이다. 죽이지 말라고.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이 잠기자 땅 물이 끊어져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전부다 싹 다 알고 계신 것이다. 우리의 머리털을 센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농담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샤워하다가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 다 아신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해야할 일 하나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편집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편집되고 그것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모세는 호렘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날 인생 전체가 편집되었다. 당연히 들어와 각인되어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다. 사도바울 처음 만나서 너는 이방인이라고 했다. 많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것 우리 되어야 한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일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내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의 최종목표는 한 개 딱 있다.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은 신경쓸거 없다는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본문 말씀이다. 7절에 보면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다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시체를 세마포로 싸면 다시 풀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씻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보고 믿었다고 하였다. 왜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싸냈던 수건 안에 머리만 어떻게 빠져나오나? 기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정된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는 신분이었다. 그런데도 죽었다면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죽은 것이다. 일부러.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분인데 죽었으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다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결국 죽고 기다리는 것이 지옥 뿐인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고 그의 언약이 저주를 해결했다는 증거이다. 그의 십자가의 언약이면 우리는 저주에서 나오고 사망에서 나온다는 그 메시지이다. 사람들이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짜로 개인적으로 생각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는 것이다.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스스로 찾아간 사람이다. 그때 생각 많이 했다. 죽음이 뭔지, 태어나는게 뭔지, 혼자 철학자 다 되었다. 그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난리가 나도 내 생각에 죽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았다. 불안하든지 말든지 안죽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있는가? 50대에 건강 때문에 죽을거라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 어릴때는 그렇지. 50대는 병도 걱정 안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정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줬는데, 그것이 부활이다.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주에서 나와라. 죽음을 넘어서야 한다. 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언약에 대하여 답인 것을 증명했다. 그것이 부활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죽었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잡으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이유는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이다. 사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나? 영적인 감각 없으면 사단도 역사 안한다. 복음을 알고 영적 눈을 뜨면 사단이 더 벌떡처럼 달려든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이유는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 언약을 잡고 살면 니 인생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이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가 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고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인생 역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도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언약을 강조하는 교회이다. 부활은 언약의 결과이다. 너무나 잘 안 믿으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 교회는 간증이 많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가슴에 들어있는 것이다. 언약 잡아야 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진짜 전해져서 사람을 살려야 하고 그것이 들어가야 하니까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중요하다.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것이 언약이다. 여기에 부활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 이 언약을 잡으면 내 인생이 살아난다. 이것이 인생의 부활이다. 전에는 영적으로 승리 못했다. 누림도 형편 없었다.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뭘 이뤘냐면 이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 것이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처럼 끝났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사실에 대한 영적인 힘이 생긴다. 사단을 꺾을수 있는 영권이 생긴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언약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수 있는 답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 당신이 하신 십자가의 언약인 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이다.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부활이 없으면 아직까지도 언약에 대한 설명이 끝이 안나고 더 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겠는가? 그 십자가의 언약은 완전한 것이구나, 진짜구나 했을 것이다. 또 하나 있다.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다. 그래 내가 너에게 뭐라했냐? 내가 그리스도이고 그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했잖아 하고 바로 올라가신 것이다. 아주 언약이 무엇인지 완전히 설명 끝내버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언약이다. 실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내것이 안된다.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주에서의 해방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부활한다. 부활안될 내가 부활된다는 것이다. 내 인생 살아난다. 부활이다. 내 기도 살아난다. 내 기도가 부활되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부활되는 것이다. 정말 사단의 권세 꺾었고 저주를 꺾었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으면 믿음 주시라고, 분명한 사실인데 왜 안 믿어지는지 기도해야 한다. 언약 잡고 누려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 눈 떠야 한다. 그리고 딱 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 2. 부활 후에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아주 우리 인생에 깊은

참고가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다니며 위로하시고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자이다. 누가복음 8: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일곱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였다. 이 여성이 처음으로 보았다. 힘들었을 것이다. 일곱귀신이 들렸다. 인생 다 깨졌을 것이다. 정신 없다. 그런데 어느날 예수님 만나서 싹 깨끗이 해결되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문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는 의심을 했다. 손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해보라고 하면서 믿는자가 되라고 하였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나타내셨고 40일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약속도 하시고 명령도 하셨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부활메시지 4개이다. 약속과 함께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28:16-20절 다 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복음화 237 해라는 말이다. 그리고 약속했다. 그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가복음 16:15-20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병든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절에는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전파했다고 하였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사도행전 1:8이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이 임할것이니 기다려라. 그러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20절 후대를 키우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내 인생의 답이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237, 치유, 서밋으로 잡은 것이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받아야 할 사명이다. 그런데 사명이 아니고 답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향하여 사업하면 내가 니 사업에 역사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사업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므로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전도자는 두말 할 것 없이 이것 해야 한다. 다른 것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도 당연히 한다. 교회가 이거하지 뭐할 것인가? 직장 다니는것이나 자기 개인일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향하여 살아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에 역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렘넌트를 왜 공부하는가? 진짜 자기에게 질문해보라.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나, 내가 내 인생에서 잘 살려고 하는것인가? 대부분 그럴 것이다. 또 다른 목표가 있을수도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틀린 것 아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옆길이다. 이것이 딱 들어와야 한다. 이게 내 인생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말 할 필요 없다. 응답만 계속 받으면 인생 끝이다. 이것이 답이라는 말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신 네가지 메시지가 언약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으로 편집되고 이것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훈련과 메시지 받은 것이다. 마음을 바로 잡고 다시 한번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기 바란다. 나는 어디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번주간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 방식이다. 다른 것으로 방향하지 말라. 이것이 답이다. 이것을 향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리고 미국과 남미의 복음의 큰 문이 열리기 바라고 이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바란다. 렘넌트와 다민족이 많이 준비되어 이 일이 미국에서도 불꽃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사단은 너무나 공격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소박한 전도로는 안된다. 진흙탕 싸움해야 한다. 피터지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잡은 미국이고 남미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바란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때까지 기다렸고, 아사셀 염소는 이를 위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죽었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보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직장에 다니고 공부하는가? 이것을 고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